



2012년 3/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둔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3/4분기 중 가계신용¹⁾은 13조 6,000억 원 증가하였으며, 9월 말 잔액은 937조 5,000억 원을 기록함.

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5.6%로 2011년 3/4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.

■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882조 4,0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12조 1,000억 원 증가하였으며, 증가폭은 2/4분기(12조 8,000억 원 증가)에 비하여 둔화됨.

●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/4분기 중에는 4조 8,000억 원 증가하였으나, 3/4분기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감소하여 1조 4,000억 원 증가에 그침.

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도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감소(2/4분기: 4조 원 증가 → 3/4분기 1조 2,000억 원 증가)

● 그러나 기타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자산유동화회사, 보험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(2/4분기: 4조 1,000억 원 증가 → 3/4분기 9조 4,000억 원 증가).

■ 9월 말 판매신용 잔액은 55조 1,0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 5,000억 원 증가함.

● 부문별로는 신용카드회사와 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판매신용이 1조 6,000억 원 증가한 반면, 백화점 등 판매회사는 1,000억 원 감소함.

● 2/4분기 중에는 1,000억 원 감소를 나타냈으나, 3/4분기 중에는 여름휴가, 추석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증가세로 전환됨.

(2012년 3/4분기 중 가계신용(잠정), 한국은행, 11/22)

1)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임.